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미술상담 사례연구*

김 영 미[†]

탄천초등학교

조 봉 환

공주교육대학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에게 미술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 향상을 돕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담임을 맡고 있는 충청남도 공주시에 소재한 T초등학교 1학년 학생 중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미술상담 프로그램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고, 2011년 8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주 2회(회기당 40분정도)씩 총 12회기로 실시하였으며, T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본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검사’, ‘학교생활적응 검사’, ‘K-HTP검사’를 사전·사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미술상담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미술상담 프로그램,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공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1) 일부를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영미, 탄천초등학교, 충남 공주시 탄천면 통산로 168

Tel : 041-854-1625, E-mail : kymbaby25@hanmail.net

오늘날 한국 사회는 국제적 지위 향상, 정보통신의 발달 및 정보 공유의 확산,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 물질·인적 교류 활성화 등으로 국내외 인구 이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흐름 속에 단일민족, 단일 국가를 고수해 온 한국사회도 이주민과 혼혈인의 증가로 점차 다문화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문화와 생활환경을 배경으로 한 가족 체계의 증가로 한국 사회에 ‘다문화가정’이라는 새로운 유형이 생겨났으며, 특히, 농·어촌, 도시의 저소득층 남성들이 동남아시아 여성들과 결혼하는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박계란, 2010). 2001년 국제결혼 총건수 14,523명에서 2009년 33,300명으로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도 늘어났다. 2009년 다문화가정의 아동 수는 24,745명으로 2008년에 비해 31.8% 증가했으며, 2005년 6,121명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났다(통계청,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제점이 점차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2007년부터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응, 학교생활 등을 주제로 하여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이들이 언어발달에서 지체를 보이거나 문화부적응 등을 경험하면서 학교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박수정, 2008; 신혜정, 2007; 정정희, 2006; 홍영숙, 2007). 외국인 어머니를 둔 초등학생의 경우, 발음과 억양이 어색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망설이는 성향 때문에 수업시간에 모르는 것이 있어도 질문하기를 어려워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문제점은 학습결손과 편견, 차별로 인한 학교 부적응으로

나타났고 학교에서 대인관계가 매우 소극적이며 자신들의 특성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선, 2009).

이들 연구에서는 대부분 다문화가정 아동은 국내에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동들과는 달리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박수정, 2008).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은 언어발달이 늦어짐에 따라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 학습부진을 겪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을 설문한 결과 ‘기초교과 지도(27.8%)’, ‘학교교육비·급식비 지원(25.5%)’, ‘한국어·한글교육(9.3%)’, ‘나의 모국어교육(8.2%)’, ‘진학지도(8.0%)’, ‘심리상담(5.6%)’, ‘기타(15.6%)’로 응답했다(통계청,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은 말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한국어로 시집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머니 밑에서 교육되어지기 때문에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지만, 맞춤법과 발음 등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결혼가정 아동은 학교수업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이 되거나 반대로 과잉행동장애 등의 정서장애를 겪게 될 수도 있다(안원석, 2007). 둘째, 다문화가정 아동은 거부장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버지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어머니의 가치관과 생활태도에서 오는 이중 문화의 차이에서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혼란을 겪는다(홍영숙, 2007). 대부분 양육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어머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과 다른 문화를 접하게 되고 자신이 혼혈이라는 사실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도 한다(신혜정, 2007). 셋째, 다문화가정 아동은 자신들을

바라보는 편견과 특별한 관심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은 교우 사이에 언어능력이 떨어지거나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따돌림이나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과중한 업무와 교실 여건상 다문화가정 아동을 살피거나 그들의 적응을 위한 개인적인 배려나 도움을 주기 어려운 교사로 인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박수정, 2008). 이처럼 다문화가정 아동은 언어적 표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적 표현이 아닌 미술이라는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꾀할 수 있다.

박선희(2010)는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미술치료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 다른 두 문화간의 갈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도록 하며, 자신의 갈등을 지각하고 수용할 수 있다. 둘째, 언어적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는 부담 없이 자신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남들과 다른 외모와 발달 지연된 언어 등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미술치료는 이러한 감정을 해소하기에 효과적이다. 넷째, 미술치료를 통해 보편성을 경험할 수 있다. 자기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다른 아동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며 해결해 나가는지를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며 자연스러운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이타주의적 협동심을 배양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다섯째, 미술작업은 지각적이고 운동 감각적이기 때문에 만지고, 만들고 재료를 손으로 다루는 그 행위가 깊은 즐거움을 주는 원천이 된다. 이처럼 미술 활동은 아동으로 하여금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에서 저항감이 적고, 구체적이며 적극적으로 표출하는데 있어 유용하기

때문에 언어적 표현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아동에게도 효과적이다.

자아존중감은 일상적인 대화나 성격 이론에 있어서 한 개인의 사회적 행동의 역할을 결정하는 중심 특성이 되며, 발달적 측면에서 개인의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 또한 아동기에 많은 변화를 보이는 성격 특성으로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태도나 자기 행동 양식을 결정하므로 효과적인 상호작용과 사회적인 적응·부적응과 관계가 깊다(공선희, 2011). 이러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경험을 하게 해야 하는데, 미술상담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맛보게 되므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김화정, 2002).

정서적으로 안정된 학생은 학교적응을 잘하고 지적 활동에 흥미와 관심이 많으며 역동적이다. 또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원만하여 학업 성적이 향상되고 행동 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학교와 사회 발전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 반면에 부적응 학생은 학교생활에서 타인과의 관계나 학교의 규범, 질서와 적절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학교에 장애가 되며, 자신의 개발에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서나라, 2006). 이러한 아동에게 미술상담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사나 친구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므로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정현영, 2006).

집단미술치료를 사용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사회성과 학교생활적응에 관련된 연구(김혜진, 2009; 박수정, 2008; 서정희, 2008)가 있으나, 기존 연구들은 같은 학년이

아닌 이질 집단이나 고학년을 대상으로 미술 상담의 효과를 검증하였고,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는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미술 매체를 이용한 미술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향상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양적 연구보다는 사례 중심의 질적 분석 접근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술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돕고자 하였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 미술상담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나. 미술상담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연구 방법

표 1. 내담자 행동 특성

대상학생	사회·정서면	신체·행동면	학습활동면
K	학교에서 실시한 [학생 정서 행동발달 선별 검사]에서 주의군으로 나타났으며, 친구들과를 자주 괴롭히는 편으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임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기를 힘들어하고, 수업 시간 수시로 뒤돌아보거나 의자에 빼딱하게 앉아 있는 등 산만한 편임	글을 읽을 수는 있으나, 읽고 난 후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하고, 혼자 학습하는 것이 거의 안 됨
J	의사표현을 거의 하지 않고 혼자서 조용히 생활하며 친구들과 먼저 다가가야 어울리는 편으로 소극적임	쉬는 시간에는 J와 함께 교실을 뛰어다니거나 점심시간에는 조용히 혼자 교실에 있는 경우가 많음	기본적인 학습은 가능하나, 목소리가 작고 표현이 거의 없으며 수업 중 전체 설명을 다소 어려워함

연구 대상

충청남도 공주시에 소재한 T초등학교 1학년 학생 중 다문화가정 학생 2명을 선정하여 보호자와 학생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였으며, 대상학생의 행동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 도구

가. 자아존중감 검사

자아존중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Coopersmith (1967)의 SEI(Self-esteem Inventory)를 재구성하여 타당화한 신철(1997)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업적 자아존중감의 네 개의 영역으로 5단계 척도로서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 형식은 5점 Likert식 척도로 채점하였으며, 부정 문항은 반대로 채점하였다. 이 검사의 전체 신뢰도는 .92로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신철, 1997; 박수정, 2008에서 재인용). 이 검사는 1학년 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상담자인 담임 교사가 직접 읽어주고 학생들

표 2. 미술상담 프로그램의 구성 및 개요

단계	회기	주제	활동내용	목표	시간(분)	관찰내용
자기 탐색		사전 검사	·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검사	· 미술상담 프로그램 실시 전 실태 파악	40'	
	1	오리엔테이션	· 집-나무-사람을 한 장의 종이에 그리기 · 작품 내용 설명하기	· 개인 성장의 변화 과정과 자아상 파악	40'	일반적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2	우리 교실	· 학교생활 그림 그리기 · 작품 내용 설명하기	· 학교 내에서 교사와 친구 사이의 상호관계 파악	40'	학업적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자기 이해	3	우리 가족	· 동물의 특징 살펴보기 · 우리 가족을 동물로 표현하여 그림 그리기 · 작품 내용 설명하기	· 가족관계와 가족에게 느끼는 감정 파악	40'	가정적 자아존중감
	4	내가 사랑하는 사람	·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된 그림을 9칸으로 나누어 그리기 · 작품 내용 설명하기	· 인간관계 및 사회성 파악	40'	사회적 자아존중감
	5	가지고 싶은 나	· 나에게 부족한 것 찾아 점토로 만들어 주기 · 작품 내용 설명하기	· 현재의 생각, 욕구, 감정 등을 파악	40'	가정적 자아존중감
자기 표현	6	행복과 불행	· 내가 느끼는 감정을 생각하여 그리기 · 작품 내용 설명하기	·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감정 이완	40'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7	내 마음	· 지금 내 마음에 맞는 느낌으로 만다라 그리고 색칠하기 · 작품 내용 설명하기	· 무의식 속의 잠재능력을 깨달아 자신에 대한 긍지 갖기	40'	학교생활적응
	8	나의장점 찾기	· 손 모양을 본 뜨고 나의 장점과 단점 쓰기 · 작품 내용 설명하기	· 긍정적인 나를 찾아 자아존중감 향상	40'	학업적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새로운나	9	꿈나무	· 20년 후의 내 모습을 잡지를 오려 꾸미기 · 작품 내용 설명하기	· 정체성 개발 및 학교 생활적응 향상	40'	사회적 자아존중감
	10	마무리	· K-HTP · 작품 내용 설명하기	· 변화된 모습 살펴보기	40'	일반적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사후검사	·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검사	· 미술상담 프로그램 실시 후 실태 파악		

이 스스로 검사지에 표시하여 미술상담 프로그램 전·후를 비교 분석하였다.

나. 학교생활적응 검사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김아영(2002)이 표준화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의 4개의영역으로 4단계 척도로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로 채점하였으며, 부정 문항은 반대로 채점하였다. 이 검사의 전체 신뢰도는 .78로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김아영, 2002; 조은정, 2011에서 재인용). 이 검사는 담임교사가 학교생활 모습을 직접 관찰하고 실시하여 미술상담 프로그램 전·후를 비교 분석하였다.

다. K-HTP 검사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정도의 질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K-HTP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미술상담 프로그램의 처음과 끝 시간에 그리도록 하여 그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의 위치나 크기, 세부 묘사의 생략이나 첨가, 음영, 필압, 선이나 획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집은 개인생활의 물리적인 환경과 대인관계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고, 나무는 무의식적인 심리적, 신체적 자아상을 의미하며, 인물상은 보다 의식화된 자아상이나 양육자를 의미한다.

연구절차

본 연구의 상담기간은 2011년 8월 4주부터 주 2회 총 10회기로, 매 회기 소요시간은 40분 내외이다. 본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교실에

서 사전 검사, 미술상담, 사후 검사 순으로 실시하였다.

미술상담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김문갑(2009)의 내용을 응용하여 미술치료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연구의 대상 및 목적에 맞도록 재구성한 것이다. 미술상담 프로그램은 <표 2>와 같다.

연구결과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술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향상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사례연구로서 ‘자아존중감 검사’, ‘학교생활적응 검사’, 투사검사(K-HTP)의 사전·사후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미술상담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회기별로 요약·분석하였으며,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을 연구자의 관찰과 검사결과로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가. 자아존중감의 변화

연구 대상 학생의 미술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자아존중감 발달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자아존중감 검사지’를 이용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해가 어려운 낱말은 상담자가 하나하나 읽어 주면서 스스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검사 결과 K는 94점에서 109점으로, J는 97점에서 105점으로 총점수가 상승하였다. K는 일반적 자아존중감 3점, 사회적 자아존중감 5점, 가정적 자아존중감 2점, 학업

적 자아존중감 5점 상승하였다. J는 일반적 자아존중감 1점, 사회적 자아존중감 3점, 가정적 자아존중감 0점, 학업적 자아존중감 4점 상승하였다.

점으로 총점수가 상승하였다. K는 교사관계 7점, 교우관계 5점, 학교수업 2점, 학교규칙 3점 상승하였다. J는 교사관계 5점, 교우관계 4점, 학교수업 4점, 학교규칙 1점 상승하였다.

나. 학교생활적응의 변화

연구 대상 학생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생활적응 검사지’를 이용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해가 어려운 낱말은 상담자가 하나하나 읽어 주면서 스스로 표시 하도록 하였다. 검사 결과 K는 48점에서 65점으로, J는 49점에서 63

다. K-HTP 그림 분석에 의한 변화

대상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내면세계를 측정하기 위해 미술상담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K-HTP(동적-집,나무,사람 그림) 검사를 각각 실시하였다. K-HTP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는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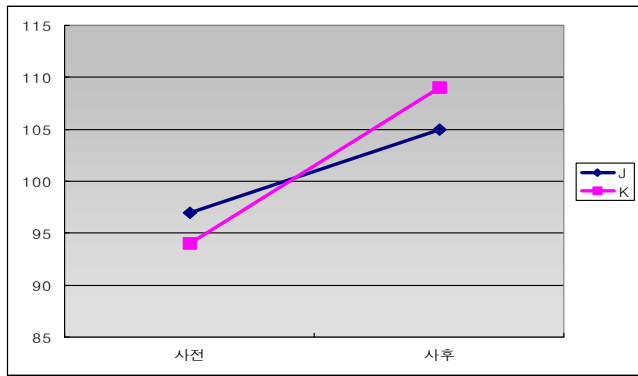


그림 1. '자아존중감' 검사 결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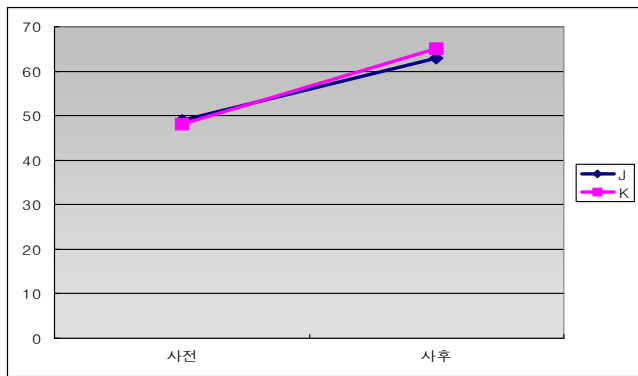


그림 2. '학교생활적응' 검사 결과 비교

표 3. K의 K-HTP 사전·사후 검사 결과 비교

사전 검사	사후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으로 산만한 그림으로, 이미 베고 난 나무 두 밑둥과 아버지가 집에 땀 나무를 베고 있으나, 그 나무 위에는 어미 새가 새끼 새를 데리고 이사를 왔다고 한다. · 집은 아주 작은 문이 있으나,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적다. · 나무가 줄기의 굵기에 비해 위로 길게 뻗어 있어, 일로 바쁜 부모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 아동의 그림에서 새집이나 새와 같은 동물을 그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어미 새가 새끼새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은 자신의 모습이 그렇지 않기에 대리만족화하기 위한 것이며, 자신의 불안한 생활을 나무를 베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 가지가 굵어져서 나무를 향해 있는 모습은 공격적이다. · 지나치게 손을 크게 그렸으나 사람의 발이 없는 것은 충동적·과잉행동적인 성격을 보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적 안정적인 그림으로, 동생들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보아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원활해졌고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 굴뚝과 대문, 창문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자기 개방적이고, 다른 사람과 쉽게 어울릴 수 있다. · 집의 앞과 옆으로 길을 만든 것은 외부와의 통로를 열어 놓은 것으로 개방적이다. · 길게 뻗어 있는 뿌리가 관심과 사랑이 부족한 듯 보이지만, 굵고 튼튼한 나무 기둥은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 혼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지만, 모두 웃고 있어 주변 사람과 잘 어울린다. · 동그랗게 그린 손에 비해 아직 발이 없는 것은 유아기적 행동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 구조적 해석 기준(김문갑, 2009: 108-129).

△ 그림의 위치 - 위쪽은 자신감 부족, 왼쪽은 충동적, 아래쪽은 불안정함

△ 필압 - 강한 필압은 긴장·불안, 약한 필압은 소심함

△ 그림 크기 - 큰 그림은 공격적 충동적, 작은 그림은 자신감 부족

△ 집 - 자라온 가정환경

굴뚝: 가족간의 관계, 애정 교류

문: 세상과 자기 자신과의 접근 가능성

창문: 대인관계,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

지붕: 내적 공상활동, 자기생각, 관심

벽: 자아강도와 통제력

계단: 타인과의 근접성

표 3. J의 K-HTP 사전·사후 검사 결과 비교

(계속)

사전 검사	사후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일 나무를 베고 있는 아저씨와 일하고 돌아오는 엄마의 모습을 그렸다. · 전체적으로 필압이 약하고, 그림이 작아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인다. · 여러 채의 집을 그렸으나, 지붕에 무늬가 있고, 작은 집들이 여러 채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보다 감추려고 한다. · 작은 창문과 대문을 그린 것은 외부와의 소통을 조금이나마 하고 있다. · 과일 나무를 그려 의존적인 현실을 나타내었으나, 베고 있는 모습은 의존적인 자신의 성격을 벗어 버리고 싶어 한다. · 아저씨를 여러 번 지우고 그려 자존감이 약한 듯 보이며, 모자를 세밀하게 그려 완벽하려고 노력한다. · 태양을 모서리에 조금 그리고 구름을 많이 그려 부모와 주변 사람에게서 받는 사랑이 부족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5명의 가족 중 4명이 각자 활동을 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함께 하는 모습은 없다. · 전체적으로 필압이 강하고, 종이에 그림이 짙차도록 크게 그려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인다. · 가정에서 가족이 모두 모여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 · 큰 집의 큰 대문과 작은 창문이 대조적이나 외부와의 소통을 위해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려고 한다. · 굵고 튼튼한 나무에 비해 웅이진 곳은 불안하거나 혼란한 마음을 보이고 있다. · 사람을 모두 옆모습으로 그려 자신감이 부족하나, 모두 웃고 있는 모습은 외부와 소통하려고 노력하며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 구조적 해석 기준(김문갑, 2009: 108-129).

△ 나무 - 자기 혹은 내면화된 자기대상의 힘

과일나무, 새: 애정욕구

기둥: 자기대상의 힘

가지: 환경과 접촉하는데 필요한 자원, 능력

뿌리: 내적 자신에 대한 안정감

△ 사람 - 그린 사람의 의식적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 자아개념

별리고 선 자세: 공격적인 저항이나 불안정

보통과 다르게 그려진 몸통: 둥근 몸통은 수동적, 각진 형태는 남성적

신발 강조: 커다란 신발은 안정에 대한 욕구

논 의

본 연구는 미술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을 돕기 위해 실시한 사례연구로,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기반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변화를 양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미술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전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 아동 K는 94점에서 109점으로 15점 향상되었으며, 아동 J는 97점에서 105점으로 8점 향상되었다. 이는 박수정(2008), 김혜진(2009), 서정희(2008)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홍미영(2009)의 미술상담 프로그램이 부적응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에게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승현(2010)은 5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 모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소극적인 J학생보다는 공격적인 K학생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의 변화를 양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미술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적응 능력이 향상되었다. 아동 K는 48점에서 65점으로 17점 향상되었으며, 아동 J는 49점에서 63점으로 14점 향상되었다. 이는 박수정(2008)이 학령전기 다문화가정 자녀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학교

생활적응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김전옥(2007)은 ADHD 아동에게, 김정민(2007)은 고립아동에게 집단 미술치료가 효과가 있다 하였고, 공선희(2011)는 미술상담 프로그램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적응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는데,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에게 실시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셋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심리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K-HTP검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사전검사 결과 K는 산만한 그림으로 공격적이고 충동적이며 타인을 배척한 반면, 사후검사 결과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된 그림으로 개방적이고 주변 사람과 잘 어울리며,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 사전검사 결과 J는 전체적으로 필압이 약하고 그림이 작아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고, 의존적인 생활을 벗어나려고 노력한 반면, 사후검사 결과 전체적으로 필압이 강하고 종이에 그림이 꽉 차도록 크게 그려 높아진 자아존중감을 보였다. 또한, 사람의 옆모습만 그려 자신감이 부족한 듯하였으나, 크게 웃고 있는 모습에서 외부와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넷째, 매 회기마다 각 학생의 행동특성을 기술하는 질적 분석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의 미술상담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 비교·분석하였다. 프로그램이 1~5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자기 탐색 및 이해의 시간을 가짐으로 '나'라는 존재에 대해 알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6~10회기 동안은 자신을 표현하고 소중함을 새롭게 느끼게 하며 프로그램이 마무리 된 후에는 문제 해결 방법을 혼자 찾기 보다는 다른 사람과 의논하여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섯째, 연구자가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모습을 관찰·비교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미술상담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 향상에 효과적이었다. K는 친구들을 자주 괴롭히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수업시간 잠시도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움직였으나, 친구들과 쉬는 시간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에도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다른 친구들도 K가 괴롭힌다는 소리를 하지 않게 되었다. J는 의사표현을 거의 하지 않고 점심 시간 혼자서 놀았으나, 수업 시간 발표 소리가 커지고 쉬는 시간 친구들과 노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으며, 점심 시간에도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열심히 노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미술상담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향상에 효과적이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자아개념이 형성되어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미술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향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에게 미술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상담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자아존중감 검사에서 94~97점이었던 사전 점수가 사후 검사에서는 105~109점으로 변하였다. 산만하고 공격적이거나 소극적이었던 학생이 미술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교생활에 만족스러워하였으며 비교적 편안하고 안

정된 심리상태를 나타내었다. 이는 미술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자유롭게 표현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서로를 칭찬하는 말들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존중받아 자신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미술상담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학교생활적응 검사에서 48~49점이었던 사전 점수가 사후 검사에서는 63~65점으로 변하였다.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은 미술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기 탐색과 이해, 표현 및 새로운 나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학교생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친구와 선생님에게 한걸음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미술상담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미술상담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심리 변화를 유도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초기에는 공격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종결단계에서는 안정적인 태도로 의사표현을 먼저 하였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미술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향상에 효과적이었으며, 내담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프로그램 운영의 시기를 2학기로 하여 10회기만 운영하였는데, 학기가 시작되는 1학기 때부터 프로그램을 연장시켜

장기간에 걸쳐 운영한다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중 산만하고 공격적이거나 소극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동질집단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집단 특성을 고려한 미술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학교와 가정이 연계된 미술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연구자가 담임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하면 소극적인 학생에게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공선희 (2011).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적응 향상을 위한 미술상담 사례연구.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문갑 (2009). 그림으로 마음읽기 두 번째 이야기. 하나출판사.

김문갑 (2009). 그림으로 마음읽기 첫 번째 이야기. 하나출판사.

김미선 (2009).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전욱 (2007). 초등학교 ADHD 아동의 집단 미술치료 사례연구.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민 (2007). 초등학교 고립아동에 대한 집단

미술치료 사례연구.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진 (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화정 (2002). 집단미술치료가 초등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계란 (2010).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선희 (2010).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 스트레스 완화와 또래관계 향상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 동서보완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수정 (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승현 (2010).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지속 정도에 미치는 효과.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나라 (2006).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정희 (2008).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배재대학교 행정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혜정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원석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표현 실태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정희 (2006). 결혼이주여성 자녀의 기초학습 능력증진과 정체성 강화를 위한 교육방안. 대구: 경북연구원.
- 정현영 (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아시아 여성과 한국 남성의 이중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정 (2009). K-HTP에 나타난 지적장애 성인의 우울 및 불안 특성 연구.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0). 2010 청소년통계 보도자료. 통계청.
- 홍미영 (2009). 부적응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한 미술상담 사례연구.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영숙 (2007). 다문화가정이 봉착하는 자녀교육문제와 시사점.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원 고 접 수 일: 2011년 12월 16일
◆ 수정원고접수일: 2012년 1월 09일
◆ 게 재 승 인 일: 2012년 1월 12일

A Case Study of Art Counseling for the Improvement of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y

Young-Mi Kim

Tancheon Elementary School

Bung-Hwan Cho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aimed at help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y in boosting their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by conducting the program of art Counseling.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by performing art Counseling on two first-graders from multicultural family whom I have been supervising in the class at T elementary school in G City, South Chungcheong Province. The art Counseling program employed in the study is the one the researcher developed by reorganizing the programs used in previous studies in a way that would confirm to the aim of the research. A 40 minutes session was held twice a week from August 30, 2011 to October 6, 2011, resulting in a total of 10 sessions. The researcher herself conducted the sessions during after school at the first grade classroom of T elementary school. The following analyses were performed to generate resul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y, “the test measuring self-esteem”, “the test measuring the school life adjustment”, “the K-HTP test” was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e art counseling program. The results were analyzed through comparison. The foregoing analyses revealed that the art Counseling program is effective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y.

Key words : program of art Counseling , self-esteem, school adjustment